

24년 11월 목회일정

10.21~11.16 17일(주일)	공식심방(재정심방포함) 감사주일(감사나무만들기-한나회) 성찬연령별모임
24일(주일) 2일(토) 5일(화) 18-19일 19일(화)	연합당회(장로+집사) 부산중부노회 어린이대회(온천교회당) 노회 고시부(서창교회당) 노회 목양회(경주 코모도호텔) 고신목회자찬양단 모임(하단교회당)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오후예배헌금** / 후원목적(개혁정론 파서교회)
- 성찬입회교육** / 김성재 이은수학생
- 공식심방** / 공식심방이 계속됩니다. 기도해주세요
3일(주일) 김지현성도(16:30) 4일(월) 최성림가정(19시)
5일(화) 박지영가정(20시) 6일(수) 이근영성도(18시)
7일(목) 최예지성도(18:30) 8일(금) 김용대가정(20시)
9일(토) 양주동가정(12시)
- 목사동정** / 노회 고시부 - 5일(화) 11시 서창교회당
-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감사나무만들기]

- 일시 : 11월17일(주일) 오후예배 후 - 주최 : 한나회

* **처음오신 분** / 허성현(목사) 김선녀 오히라 김대현 성도
(부산동부노회 이음교회)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 (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 (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연합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11월	12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박지영	강정희
안 내	김민혁	노주혜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 개혁 언론)
	파 서 교 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국 성 연 화 교 회 (최 지 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11.03.(제28-44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개 회

- * 예배에로의부름 ↑ 시66:1-2(교송)
인도자 :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지어다
회 중 :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이다
-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경 배 찬 송 ↑ 시편89편(5-6)

죄의고백

- * 십 계 명 봉 독 ↓ 출20장(전계명/봉독)
- * 죄 의 공 적 고 백 ↑ 다같이
-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 감 사 찬 송 ↑ 찬송10장(7a-8)

말씀봉사

-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 성 경 봉 독 ↓ 딤후 3:14-17
-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19-4편
- 설 교 ↓ 설교자

성경의 사람

-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 세 례 식 ↓ 필요시 시행
-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시편133편 구제헌금 분병 분잔
- 목 회 의 기 도 ↑ 설교자

봉사사역

- 봉 헌 및 봉 헌 찬 송 ↑ 찬송가201장

폐 회

- * 강 복 선 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교회소식	오후 3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주간기도회		
		개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에스라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 예배예로의부름 ↑	시99:1,3(교송)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축]		
	인도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인도 : 최성림 목사		
	회 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지역기도회		
	* 축복의인사 ↓	벤후1:2(인도자)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목, 10:30) * 울산(화, 19:30)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수, 19시) * 특별(시간지역협의)		
	* 경배찬송 ↑	시편50편(7-8)	이야기성경		
	신앙고백			구	76. 히스기야왕	
	* 신앙고백 ↓	사도신경(고신총회)		77. 큰병에 걸린 히스기야	
* 감사찬송 ↑	찬송24장(3a-5)	신	49. 눈이 먼 사울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주간성경읽기			
성경봉독 ↓	삼상2:22-25, 히10:29	주일	대상10-12	요12:20-50	
교리문답교독 ↓	소교리83-84문답	월	대상13-15	요 13	
선포를위한찬송 ↑	시19편(3-5)	화	대상16-18	요 14	
설교 ↓	설교자	수	대상19-21	요 15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죄			목	대상22:24	요 16	
아멘 송 ↑	찬송가643장	금	대상25-27	요 17	
자비사역			토	대상28-29	요18:1-18	
봉헌및봉헌찬송 ↑	시편119-14편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성경의 사람)

1.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믿을 수 있기를
2. 성경에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3. 성경대로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파서교회(강인종목사)

1. 목사가 맡겨진 직임들(말씀,성례,성경공부인도..)을 감당하여 교회를 말씀의 터위에 굳게 세우도록
2. 교회의 직분자들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누리며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3. 필요한 재정이 이웃교회를 통해서 적절히 채워져서 공교회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1. 개혁정론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도록
2.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권위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언론이 되도록
3. 고신교회가 역사적 개혁주의전통을 회복하도록 개혁신학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제공하도록

성도들의 일상을 위해

1. 6일 동안 맡겨진 의무를 균형있게 잘 감당함으로써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환경되게
2. 감정조절을 잘하여 어떤 순간에도 순결하고 어여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3. 성경의 교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보며 더욱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실 때 모세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라고 하며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불가하다고 거듭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 하나!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고 하십니다.

아론은 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이나 교제하며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아론이 백성들을 다스리며 인도하였습니다.

모세가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한 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 말쟁이 아론은 어떤 고민도 없이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몸에 있는 금붙이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한 후 그것을 녹이고 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고 하니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진짜 신인 것처럼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추며 뛰 놀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모세에게 백성들의 망령된 죄악을 알리시고, 그로 백성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 보냈습니다. 백성들의 추악한 행태를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린 후, 아론을 불러 이계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쟁이 아론이 말장난을 합니다. “이 백성이 악한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단지 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그 금붙이를 불에 던졌더니 이렇게 금송아지가 툭 튀어 나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단지 그들이 가져온 금붙이를 불에 던져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오더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금붙이들을 받아 금송아지 틀에 붓고, ‘직접’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출32:4절에 금붙이를 ‘받고 붓고, 새겼다’는 이 세 개의 동사는 다 3인칭 단수, 곧 이 행위의 주체를 아론이라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이 때 아론이 속한 레위지파는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고, 도리어 아웨의 편에 서 있었고(레위인들이 자기 아들과 형제도 쳤다는 증언을 볼 때 레위지파 모두가 이 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29절), 모세가 아웨의 편에 선 자를 부를 때, 칼을 들어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 중에 삼천명을 죽였습니다. 온 백성이 범한 큰 죄악에 비하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아론은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세의 형이어서 살려둔 것일까요? 말쟁이가 말을 잘 해서 피한 것일까요? 아니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던 3000명의 핏값을 받으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웨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를 살려놓으신 것일까요?(35절은 ‘이들 죽은 자들이 아론의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의역을 한다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이들이 금송아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곧 ‘아론의 죄보다 금송아지를 참 신으로 보고 섬긴 자들의 죄를 크게 보셨기 때문이다’는 의미입니다)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하는 제사장이 범죄함으로서 지성소까지 더럽혀졌을 때에 야웨의 성소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과 교회를 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로 인해 야웨의 교회를 심판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왕상14:16) 예수님께서도 당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헛된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 자신들만 거짓예배로 나아갈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거짓예배로 인도하는 것을 인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합니다.(마23:13-36)

직분자들의 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 너무나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혀는 불과 같아 교회를 순식간에 태울 수 있습니다.(약3:1-2) 교회의 직분자들의 죄는 교회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사단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더 악하고 큰 죄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들의 죄가 교회를 직접적으로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2) 성도의 죄 : 성도는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책임도 더 큼니다(마11:20-24). 곧,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주의 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불신자들의 죄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맞본 성도의 죄는 불신자들의 죄보다 더 큰 것입니다(히6:4). 그러므로 성도의 죄는 불신자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의 법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3. 성도의 삶 속에서 범하기 쉬운 더 악한 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더 악한 죄가 있습니다. 1)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죄는 마음으로는 범하였으나 행동으로까지는 범하지 않는 죄보다 더 크고 악합니다.

2) 알면서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크고 악한 것입니다. 또한 3)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연약함 가운데 어쩔 수 없어 짓는 죄보다 더 크고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4) 심사숙고하여 짓는 죄는 돌발적인 감정이나 시험에 급작스런 이끌림을 받아 짓는 죄보다 더 크고 악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죄를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5) 반복적으로 장기간 죄를 짓는 것은 단 한 번, 혹은 드물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속에서도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과 신앙고백을 따라서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 은혜의 방편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시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예배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상에서 베풀어지는 성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하고 큰 죄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1월 3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199장
성경봉독	딤후 3:14-17
설 교	성경의 사람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말세에는 부도덕하고, 신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거짓 교사들은 넘쳐납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의 혼란을 해결할 방법으로 “오직 성경”을 제시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의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직 성경이 답이 됩니다.

1. 성경의 원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딤후 1:5). 디모데가 배운 성경이 단지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전통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원천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직접 간섭하시는 원저자이시면서, 동시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원저자이시면서, 성경을 읽는 신자에게 진리를 아는 빛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설교 전에 ‘조명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신앙을 강요하는 일을 걱정합니다. 너무 강요하다가 자칫 자녀가 반발심에 신앙을 저버릴까봐 우려합니다.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해야 할 신앙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 성경말씀에 지배 받고 있는 부모의 삶입니다. 삶에서 삶으로 신앙이 전수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한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바울 사도도 성령충만한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그들은 성경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보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에 말세의 혼란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깁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시대의 부패함을 이깁니다. 오직 성경이 자녀를 세상의 혼잡함 속에서 지키는 힘이 됩니다.

2. 성경의 능력

성경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세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로”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따르자면 집사 역시도 장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모든 직분자입니다.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 역시도 ‘성경’입니다. 다른 두 목회서신(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따르자면 성경의 지배를 받는 성경의 사람이야말로 직분자로서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성경말씀에 순복하여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은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율행을 좇지도 않고, 대세를 따르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대로 따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말세입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성경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한 일의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참으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경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더욱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여 바르게 하고 의로 바로 세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1월 3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04장
성경봉독	삼상2:22-25,히10:29
설 교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죄	부도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성령을 훼방하여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악하지만, 그중에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습니다.

1.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죄

교리문답은 ‘모든 죄가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룹니다(소교리83문답) 즉,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악한 정도가 동등하지 않으며, 악화의 요소가 있을 때 그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부러 범하는 자들에 해당됩니다(시19:13, 요19:11, 눅12:10) 그래서 히브리서기자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은 더 중하다’고 했습니다(히10:29)

이런 죄악들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죄악보다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죄악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사람들은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과 같은 죄는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 거짓말이나 탐욕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이웃들에게 범하는 죄보다 본질적으로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침해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삼상2:25) 이웃 간의 죄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판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죄는 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 유일한 구속주로 고백하지 않으며, 그 분만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장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죄를 떠나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2. 영적 영향력의 차이에 의한 더 악한 죄

더 악한 죄에 대한 히브리서기자의 증언은 교회 안에서 영적 영향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더 악하고 큰 죄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 직분자들의 죄 : 교회 직분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영향력으로 인해 더 크고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범하는 죄는 다른 성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지만,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아웨의 성소를 더럽히며, 아웨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때에 아웨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실로의 장막을